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책 소개

딸은 집안일을 돕거나 돈을 벌다가 결혼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 아들딸 똑같이 공부시켜 달라고 외쳤던 태영.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라에 보탬이 되고 싶었던 태영은 여성 법조인을 꿈꿨어요.

남편을 욕바라지하고 홀로 집안을 책임져야 했던 태영은 힘든 시간을 보낸 끝에 늦은 나이에 법 공부를 시작했지요. 여성으로서의 한계와 편견을 이겨 내며 마침내 변호사가 된 태영. 하지만 막상 법조인이 되고 보니 법이 모두에게 평등한 것은 아니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은 남녀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과연 태영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모두에게 평등한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차별받는 사람 없이 모두에게 평등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을 만나 보세요.

역사의 책갈피에 숨어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 인물 도서관' 시리즈 아홉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은 가족법 개정에 평생을 바친 이태영의 이야기를 담은 인물·역사 동화입니다. 태영은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으며 여성 법조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이야기를 따라가며 늦은 나이에 공부해 꿈을 이루고, 목표를 위해 끝없이 나아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의 활약을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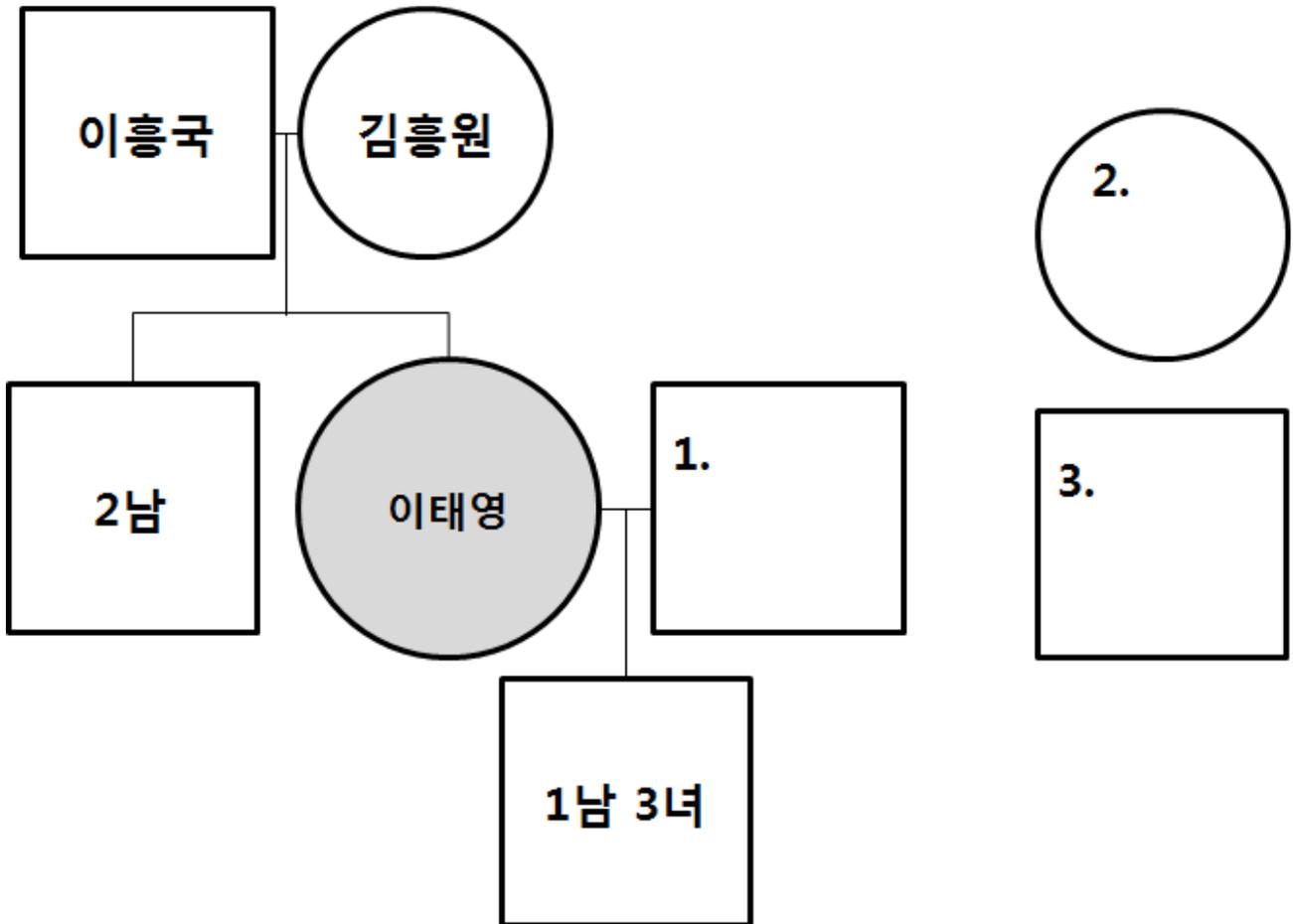
5-1	사회	2.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1) 인권을 존중하는 삶
			(2) 법의 의미와 역할
			(3) 헌법과 인권 보장
5-2	사회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2)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
			(3)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6·25 전쟁

작품 키워드

#호주제_폐지 #가족법_개정 #변호사 #법조인 #이태영

 <p>독서단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독서 전 (인물 관계도)</p>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_____
글 : 강민경 그림 : 화요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	

책을 읽기 전에 우리나라의 인물을 조사해서 다음 빈칸을 채워 봅시다.



[인물 설명]

1. 이태영의 남편이에요.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귀국 후 교회를 지어 목사로 활동하고 연희전문학교 교수로도 있었지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해방을 맞으며 정치인이 되었어요.
2.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판사예요. 제3회 고등 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가 되었어요. 1961년에는 법무부 여성문제연구위원회 실행 연구위원으로도 지명되었지요. 그렇지만 얼마 후 세상을 떠나며 짧은 판사 생활을 마무리했어요.
3.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하며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일찍부터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첫 대통령을 맡기도 했지요.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며 첫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태영이 판사가 되는 것을 반대했지요.

 <p>독서단원 -독서 중</p>	<p>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p> <p>(날말 퍼즐)</p>	<p>초등학교</p>
	<p>글 : 강민경 그림 : 화요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p>	<p>학년 반 번</p>
	<p>이름 : _____</p>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을 읽고, 다음 날말 퍼즐을 완성해 봅시다.

		②		③	④				⑥
①							⑤		
				⑩					
⑦									
		⑧	⑨				⑭		
						⑬			
	⑫								⑮
⑪						⑮			

가로

- ①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 ‘○○○○을/를 퍼트린 죄로 체포한다!’
- ③ 가족의 생활 관계를 규정한 법. ‘불공평한 ○○○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을 너무나 많이 보아 왔다.’
- ⑤ 도술로 땅을 줄여 먼 거리를 가깝게 하는 술법. ‘친구들 사이에서 태영의 별명은 ○○○ 쓰는 아이였다.’
- ⑦ 재난을 피하여 멀리 옮겨 감. ‘전쟁이 터졌다. 1950년 여름, 태영은 다시 보따리를 싸서 ○○을/를 가야 했다.’
- ⑧ 조리가 있고 막힘이 없이 당당하게 하는 말이나 연설. ‘태영은 ○○대회에 나갔다. 오랫동안 생각했던 주제로 원고를 쓰고 외웠다.’
- ⑩ 피의자 등에게 죄나 잘못을 따져 묻거나 심문하는 방. ‘날마다 찾아와 ○○○(으로) 끌고 갔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는 것도 여전했다.’
- ⑪ 주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공서나 공공 기관 등에 낼 목적으로 실제 사정을 적은 글. ‘법을 고쳐 달라는 ○○○’
- ⑬ 정치적·사회적 단체나 그 책임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을 알리는 글이나 문서. ‘회장으로서 짧은 ○○○을/를 발표했다.’
- ⑮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옷과 음식 등을 대어 주면서 뒷바라지를 하는 일. ‘이제 이 이불을 팔아서 남편 ○○○을/를 할 수 있을 거야.’

세로

- ① 중국의 공자가 만든 전통 학문인 유학을 믿고 받드는 무리. ‘○○들이 몰려와 목청껏 소리 높여 성차별적인 속담을 외치기도 했다.’
- ② 누벼서 만든 이불. ‘천을 이불 크기로 잘라 솜을 넣고 재봉틀을 돌려 ○○○을/를 만들었다.’
- ④ 자유를 구속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법이 사람을 차별하는 ○○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⑥ 헌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 재판소. ‘○○ ○○○의 결정이 났어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 ⑦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어 수사 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 ‘○○○은/는 손이 발이 되도록 짹짹 빌었다.’
- ⑨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는 사람. ‘○○○이/가 되면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나라를 위해 큰일도 할 수 있지.’
- ⑩ 작품이나 기사에 필요한 재료를 조사하여 얻음. ‘기자들은 태영이 고등 고시에 합격한 처음이자 유일한 여성이라며 ○○을/를 위해 몰려들었다.’
- ⑫ 주로 문서의 내용 등을 고쳐 바르게 함. ‘태영이 ○○하고자 하는 법 중에는 동성동본 결혼 금지법도 있었다.’
- ⑭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 ‘대법관 ○○을/를 위한 국회 인사 청문회’
- ⑮ 실시해 오던 제도나 법규, 일 등을 그만두거나 없앴. ‘호주제가 ○○되며 이태영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p>독서단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p> <p>-독서 중</p> <p>글 : 강민경 그림 : 화요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p>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_____

1.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을 읽고, 이야기 속 빈칸을 보기에서 찾아 시간 순으로 채워 보세요.

태영이 웅변대회에서 아들딸 똑같이 공부시켜 달라고 말한다.	→	태영이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가사과, 법학 공부를 한다.	→	①	→	태영이 정일형과 결혼한다.
						↓
태영이 고등 고시에 합격해서 법조인이 된다.	←	태영이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에 입학한다.	←	②	←	태영이 누비이불을 만들어 팔다.
						↓
③	→	태영이 여성법률상담소를 열다.	→	태영이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학장이 된다.	→	④

[보기]

㉠ 큰오빠가 태영에게 변호사가 되라고 말한다.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탄생하다.
㉢ 정일형이 태영의 법률 공부를 뒷바라지하겠다고 한다.	㉣ 헌병대가 정일형을 감옥에 가두고 태영을 잡아들여 조사하다.
㉤ 태영이 미국 사법 연수를 가다.	㉥ 여성백인회관이 완공되다.
㉦ 이화주일 예배 준비 중 태영과 정일형이 만나다.	㉧ 태영의 가족이 부산으로 피난가다.

2. 다음 내용을 읽고 **틀리게** 말한 사람을 고르세요. ……() (12~13쪽)

“공부해야 할 아들은 초저녁부터 자 버려 기름이 그대로 남아 있고, 공부 안 해도 좋을 딸은 등잔불 기름이 다 닳도록 밤을 새워 공부했구나. 에휴, 바뀌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말에 태영은 눈이 번쩍 뜨였다. 태영은 그대로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다. 쌀쌀한 늦가을이라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태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 앞에 섰다. 자는 줄 알았던 태영이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나오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 태영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지난번에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열심히 하면 아들딸 구별 않고 끝까지 공부시켜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태영은 눈물이 그렇그렇해지고 목이 메기까지 했다.

“아, 아니, 그, 그게 아니라…….”

태영의 어머니는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었다.

- ① 하나 : “지난밤에 태영이 오빠들보다 더 오랫동안 공부했어.”
- ② 두진 : “어머니는 태영의 오빠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해.”
- ③ 세희 : “어머니는 태영에게 열심히 하면 끝까지 공부시켜 준다고 했었어.”
- ④ 나은 : “태영은 공부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원해서 공부하고 있어.”
- ⑤ 다정 : “어머니는 태영이 자고 있다고 생각했어.”

3. 다음 내용에서 남자들은 왜 태영의 웅변 내용에 야유를 보냈을까요? (25~27쪽)

“소나 말이 마차를 끌고 언덕을 짙짙매며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를 밀며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고개가 부러질 듯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여성들을 아무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소나 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내이며 어머니이기 전에 인간이어야 하고, 남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이 태영의 웅변을 막지는 않았지만 듣고 있던 남자들이 혀를 꼰꼰 차고 야유를 했다. 샷대질을 하며 대놓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쓸데없는 헛소리다!”

“당장 끌어내라!”

4. 다음 내용에서 밑줄 친 ‘따다’와 같은 뜻이 쓰인 문장을 고르세요. ………() (34~35쪽)

‘듣던 대로 공부를 많이 한 분이구나. 공부한 것을 세상에 나눠 주려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로 태영과 일형은 마주치는 일도 잦아졌고 둘은 점점 가까워졌다. 곧 두 사람이 사귄다는 소문이 평양 시내에 퍼졌다. 태영은 일형이 싫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소문이 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태영의 집에서도 난리가 났다.

“태영아, 그 사람은 안 된다. 미국에서 박사를 따으면 뭐 하고, 연희전문학교 교수였으면 뭐 하나? 어쨌거나 가난한 집에 홀어머니 모셔야 하는 외아들이고, 지금은 돈도 잘 못 버는 목사 아니냐? 네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 시집가서까지 고생하게 놔둘 수는 없다.”

- ①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다.
- ②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다.
- ③ 병따개로 병을 따다.
- ④ 동생은 아이의 이름을 따서 가게 이름을 지었다.
- ⑤ 운전면허를 따다.

5. 경찰들은 왜 태영을 잡아들여 조사했나요? (43~44쪽)

헌병대는 일형을 평양 경찰서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 놓고, 태영 또한 잡아들여 조사했다.

“너도 남편을 도와 유언비어를 만들고 사람들을 선동했지?”

일본 경찰은 태영을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날마다 찾아와 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태영을 끌고 갔다. 처음에는 대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태영은 시간이 갈수록 오기가 생겼다.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어디 너희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 보자. 나는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말 테니까.’

()

6. 다음 내용에서 태영의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55쪽)

어느 날, 태영의 어머니가 태영을 찾아왔다.
“태영아, 네가 이불 장사를 한다던데 그게 정말이냐?”
가난한 집안에 시집보내는 것을 가슴 아파하던 어머니는 태영이 사는 것을 보고 아무 말도 없이 같이 이불을 이고 나갔다.
“어머니, 무거워요. 놔주세요. 제가 할게요.”
태영이 어머니의 머리에서 이불을 끌어내리려 했지만 태영의 어머니는 당차게 이불을 부여잡고 놓지 않았다.
“자식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다. 이까짓 이불 몇 채 들고 돌아다니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머니는 성큼성큼 태영보다 앞서 걸었다. 작은 체구의 어머니가 태영은 더없이 서글프고 든든해 보였다.

7. 다음 내용에서 밑줄 친 정일형의 말은 무슨 뜻인가요? (59쪽)

동네 여기저기에서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말 해방이 된 것이었다. 운산에서 일을 할 줄 알았던 일형은 중앙 정부에서 일하게 되어 서둘러 서울로 떠났다. 태영도 뒤따르기 위해 이것저것 살림을 정리하고 그동안 신세 진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하는데, 일형이 태영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서울 거리에서 팔을 휘젓고 다녀도 아무도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여보, 이제 보따리를 바꿔 맵시다.

()

8. 사람들은 왜 여성이 판사가 되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71쪽)

태영은 시보 생활을 할수록 자신이 법관에 잘 맞는다고 느꼈다. 월급은 적지만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음에 들었고, 여성으로서 새로운 길을 열어 보고 싶었다.

시보를 마친 태영은 판사를 지원하고 발령될 날짜를 기다렸다. 시보를 마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지원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태영의 동기들이 모두 원하는 대로 임명을 받았는데도 태영만 육 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이상하다 싶어 태영이 알아보았더니, 위에서 태영의 판사 임용을 거부했다는 것이었다.

“여자가 판사가 되는 것은 아직 이른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9. 다음 내용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들이 했을 말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 (81~82쪽)

세상은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태영이 사무실을 얻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무료로 상담해 주겠다는 상담 위원도 열일곱 명이나 구할 수 있었다. 책장, 책상, 서류 정리함 등 자잘한 사무실 집기를 마련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진심으로 칭찬하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 여기저기서 태영을 돕겠다는 작은 응원이 모였다.

“참 훌륭한 생각입니다. 판사나 검사보다 더 좋은 일을 하네요.”

그렇게 태영의 여성법률상담소는 어느 사무실 한 귀퉁이를 빌려 문을 열었다. 예상했던 대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이 더욱 몰려들었다. 직접 올 수 없는 사람들은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했다.

- ①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는데 오히려 저한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잘못을 뒤집어씌우려고 해요.”
- ② “아들을 못 낳았다고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어요.”
- ③ “아들 없이 딸만 낳고 남편이 저세상으로 갔어요. 양자를 들이지 않으면 시집에서 남편 재산을 한 푼도 못 준대요. 그냥 맨몸으로 나가래요.”
- ④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이 아니라 제가 호주가 되어야 한대요.”
- ⑤ “자식들에 대해 어머니는 권리가 없어요. 오직 아버지만 권리가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친척들에게 자식들에 대한 권리가 넘어가요.”

10. 다음 내용을 읽고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을 고르세요. ………() (90~91쪽)

“이 변호사님! 오늘 재판 어땠어요?”

싱거 판사의 말에 태영은 느낀 것을 그대로 말했다.

“한국에서는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는 무조건 남자만 키울 수 있습니다. 이혼한 여자는 평생 떳떳하게 아이를 볼 수도 없고, 혹시 아이를 키우게 되는 어머니가 있다 해도 아이 아버지는 절대 양육비를 내지 않지요. 여성과 아이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법 제도에 감동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는 가정법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태영의 솔직한 말에 싱거 판사는 환하게 웃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도 이태영 변호사님 같은 분이 있으니 곧 법이 바뀔 거예요. 가정법원도 생기고,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받게 될 겁니다.”

- ① 가빈 : “이혼 후에는 어머니만 아이를 키울 수 있었어.”
- ② 나정 : “이혼 후에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았어.”
- ③ 다영 : “부모가 이혼하면 아이는 엄마를 자주 보기 어려웠어.”
- ④ 라온 : “여성과 아이의 인권은 무엇보다 존중받았어.”
- ⑤ 마현 : “여성, 아이가 겪는 가정 환경 문제를 다룰 기관이 있었어.”

11. 학장이 된 태영이 법정대학 시설을 바꾸어 나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95쪽)

그날로 태영은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학장을 맡게 되었다.

복도만 왔다 갔다 하고 얼굴만 보여 주면 된다고 했지만 그렇게 가만히 있을 태영이 아니었다. 태영은 학장이 되자마자 많은 것들을 바꾸기 시작했다. 총장은 태영이 하겠다는 것은 두말 않고 뭐든 들어 주었다.

“법정대학을 본관 건물로 옮겨 주십시오. 교수님들 연구실을 넓고 산뜻하게 고쳐 주십시오. 법정대학 전용 도서실과 고시 준비실을 마련해 주십시오.”

()

12. 태영이 짓기로 마음먹은 건물 이름은 무엇인가요? (102~103쪽)

상담소 일이 점점 늘어난 만큼 드나드는 사람도 많아져 태영은 사무실을 빌려 쓰는 것이 버거웠다. 여섯 번이나 옮겨 다닌 이사도 매번 만만치 않았다.

‘더 이상 남의 사무실 한 귀퉁이를 빌려서 상담소를 운영할 수는 없겠어.’

태영은 여성을 위한 건물을 세우기로 했다. 여성의 손으로, 여성을 위해 건물을 올리고, 더욱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 많은 사람들을 위한다는 뜻의 ○○○○○(이)라는 건물을 짓기로 했다. 태영은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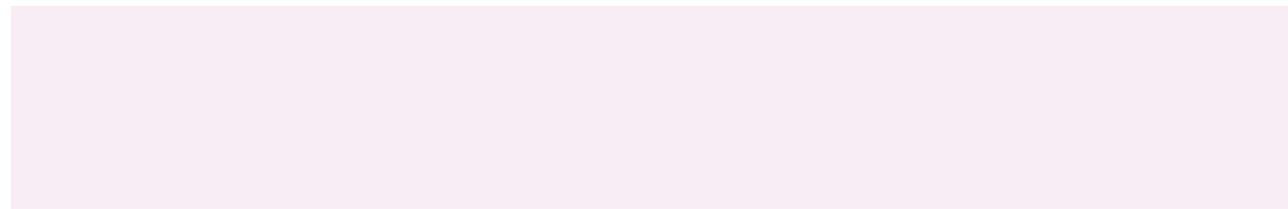
13. 태영이 받은 상 이름은 무엇인가요? (103~104쪽)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태영이 ○○○○○상 사회 지도 부문의 수상자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상은 아시아에서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나 단체에 주는 것으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는 별명이 붙은 상이었다. 태영이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잘못된 인습에 맞서 가족법 개정 운동에 앞장선 업적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된 것이었다.

(_____ 상)

14. 다음 내용에서 알 수 있는 호주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112쪽)

태영은 처음 법을 공부하던 때부터 호주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집안의 주인을 법으로 정해 둔다는 호주제에 따르면 아버지, 남편만 호주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호주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아내 혹은 어머니는 호주가 될 수 없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들이 다음 호주가 되어야 했고,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어머니보다 맏딸이 먼저 호주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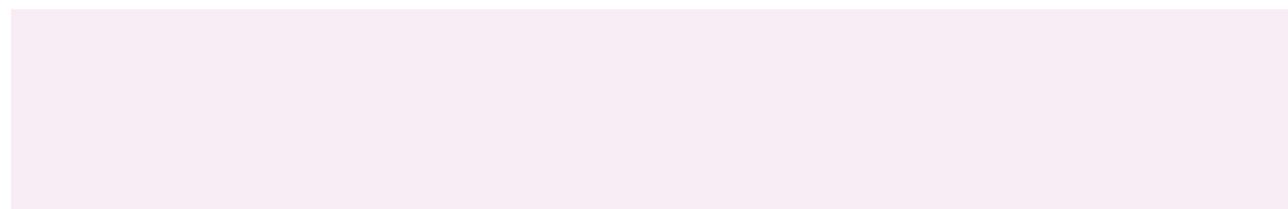
15. 다음 내용에서 남자는 왜 가족법 개정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했을까요? (121쪽)

“가족법 개정에 동참해 주세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법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휘날려도 뜨거운 땡볕에 살이 녹을 것 같아도 태영은 서명을 받기 위해 나섰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한 남자가 다가와 태영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저도 서명하겠습니다.”





독서단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독서 토의·토론)
-독서 후

글 : 강민경 그림 : 화요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_____

1. 이태영은 법 공부를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신만의 공부법이나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는지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태영은 해도 뜨기 전 꼭두새벽에 일어나 뒷산에 올랐다. 그리고 찬물로 세수를 하고는 물을 한 대야 떠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공부하다 열이 나면 그 물로 수건을 적서 머리에 얹어 식혔다. 졸음이 오면 또 물에 적신 수건으로 얼굴과 목을 닦았다. (66쪽)

2. 어떤 일을 꼭 잘해야 한다고 부담을 가지다가 오히려 결과를 망치거나 일하기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휴즈 판사가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자신의 경험을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집안일과 판사 일을 다 잘할 수 있어요?”

태영이 떠듬떠듬 문자 휴즈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두 가지 다 제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요. 판사로서 사회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고, 결혼을 한 이상 아내와 주부도 저의 역할이지요. 그렇지만 그 역할을 즐겁게 해야 한다는 뜻이지 반드시 잘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태영은 휴즈 판사의 말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86쪽)

3. 옛날에는 ‘여자는 남자보다 아래’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자만 또는 남자만 겪는 편견이 있는지, 있다면 해결법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태영의 생각이 단단해질수록 국민들의 반대도 매우 거세졌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태영이 말하는 가족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 같았다. 여자들 중에도, 심지어 신식 학문을 공부한 여자들 중에도 가족법 개정에 관심이 없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자는 당연히 남자 아래지, 도대체 법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요?”

“국회에서도 가족법 개정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이 법을 고친단 말입니까?” (114쪽)



독서단원
-정답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인물 관계도, 낱말 퍼즐, 독서 퀴즈)

글 : 강민경 그림 : 화요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_____

인물 관계도

1. 정일형
2. 황윤석
3. 이승만

낱말 퍼즐

		②누		③가	④족	법			⑥헌
①유	언	비	어		쇄		⑤축	지	법
림		이							재
		불		⑩취	조	실			판
⑦피	난			재					소
의		⑧용	⑨변				⑭임		
자			호			⑬성	명	서	
	⑫개		사						⑮폐
⑪진	정	서				⑮옥	바	라	지

독서 퀴즈

1. ① - ㉔ 이화주일 예배 준비 중 태영과 정일형이 만나다.
 ② - ㉓ 정일형이 태영의 법률 공부를 뒷바라지하겠다고 하다.
 ③ - ㉑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탄생하다.
 ④ - ㉕ 여성백인회관이 완공되다.
2. ④ 나은 : “태영은 공부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원해서 공부하고 있어.”
3. 여자가 남자보다 낮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 태영의 말이 남존여비 사상에 맞지 않아서 / 감히 여자가 나뉠다고 생각해서 등
4. ⑤ 운전면허를 **따다**.
 ※ 뜻
 ① 붙어 있는 것을 잡아떼다.
 ② 노름, 내기, 경기 등에서 이겨 돈이나 상품 등을 얻다.
 ③ 팍 봉한 것을 뜯다.
 ④ 이름이나 뜻을 취하여 그와 같게 하다.
 ⑤ 점수나 자격 등을 얻다.
5. 일제에 반대하는 정일형을 잡아서 고문하는 중에 태영에게도 겁을 주고 협박하려고 / 태영이 정일형과 함께 일제에 반대할 거라고 생각해서 등
6. 태영이 안쓰러워서 돕고 싶었다. / 지금은 힘들지만 어서 이 어려움을 이겨 내고 딸이 잘되기를 바랐다. 등
7. 지금까지 태영이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자신의 옥바라지했으니 이제는 자신이 태영의 공부를 지원하겠다.
8. 여자는 판사 일을 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 여자가 남자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해서 / 뿌리 깊은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등
9. ④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이 아니라 제가 호주가 되어야 한대요.”
10. ③ 다영 : “부모가 이혼하면 아이는 엄마를 자주 보기 어려웠어.”
11. 번듯한 공간이 있어야 교수와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12. 여성백인회관
13. 막사이사이상
14. 집안의 주인을 남자로 한정했다. / 어머니나 아내는 집안에서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등
15. 가족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법이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여성도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세상이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등